

## Table of Contents

I. はじめに

II. スンダランドの中心地としての済州島

III. アトランティス神話と済州神話の比較

IV. 君子国と済州神話の比較

V. おわりに

#### IV. 君子国と済州神話の比較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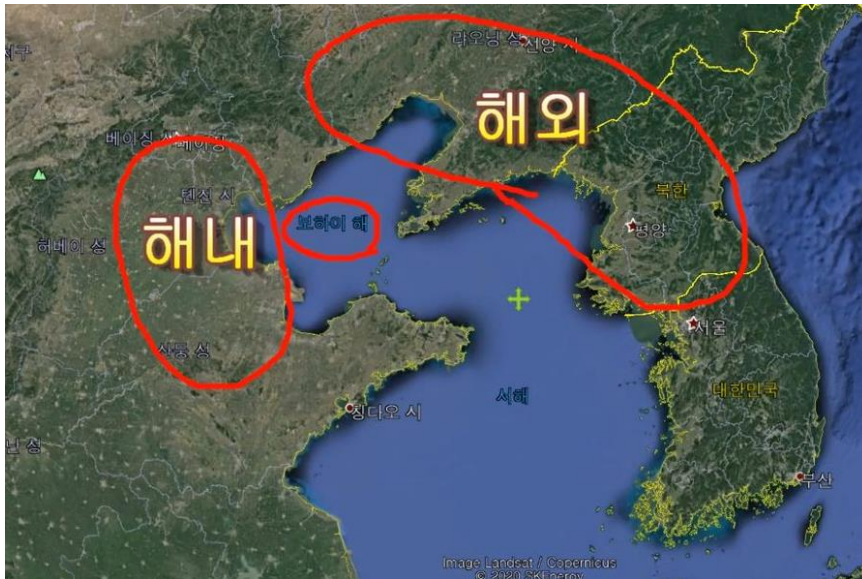
### 『관자管子』 〈소문小問〉

옛날 천자는 중앙에 있어  
지방천리를 다스린다.  
昔者天子中立 地方千里

### 『회남자』 〈지형훈隆形訓〉

동쪽에는 군자국이 있고,  
동남쪽에서 동북쪽으로 대인국,  
군자국, 흑치민, 현고민, 모민, 노민이 있다.  
東方有君子之國 … 自東南至東北方 有大人國  
君子國 黑齒民 玄股民 毛民 勞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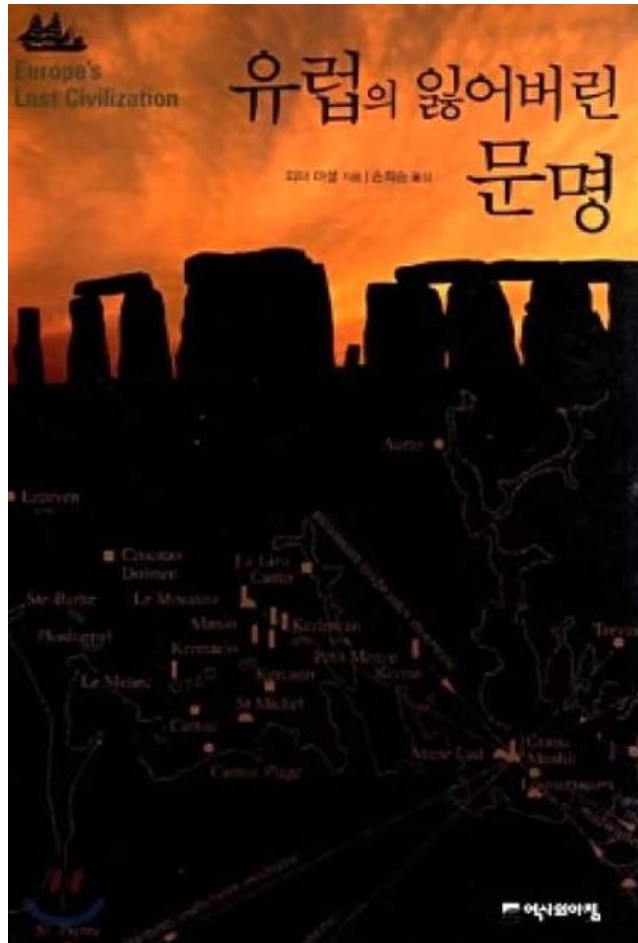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 『산해경山海經』 〈해외동경海外東經〉

해외의 동남쪽 귀퉁이에서  
동북쪽 귀퉁이에 이르는 지역.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찬다.  
짐승을 먹고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부리며  
결에 둔다. 그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무궁화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海外自東南隅至東北隅者…君子國在其北衣冠帶劍  
食獸 使二大虎在旁 其人好讓不爭 有薰華草 朝生夕死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기원전 9000년경 빙하시대가 끝나고  
빙원이 물러날 무렵, 인류는 북유럽  
탐험에 나섰다. 주로 바다를 통해 와서  
강을 따라 탐험했다. 기원전 6500년경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30미터 이상 올라갔다.

아일랜드와 영국을 유럽 대륙과 연결하던  
땅이 잠겼다. 대서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북해로 흘러 들어갔다.

-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 35쪽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 해양족 남색족의 이동



동이 - 산둥반도쪽 동이 = 남색족  
만주동이 = 혼혈

산둥반도의 동이는 태평양 섬들에 사는  
폴리네시아Polynesia 사람들의 특징 있음

전 세계 고대문명이  
비슷한 이유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 『한서』〈율력지律曆志〉

창림은 창의를 아들이다.

천하에서는 고양씨라 한다.

蒼林昌意之子也 ... 天下號曰高陽氏

창성할 창昌 = 푸른 나무들이 우거짐 = 남색 암시

황제 헌원은 원래 창제로 남색족  
그 자식들 역시 남색족.

25명의 자식들 가운데

청양(=현효=소호)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남색족

### 『예문류취』〈염제신농씨〉

〈춘추명력서〉에 전하길 신인이 있어 석년이라 이름 지었다. 얼굴은 푸른빛에 눈썹이 크며 옥리를 머리에 이었다. (옥리는 옥영과 같은데 신농씨이다)

《春秋命歷序》曰 有神人 名石年 蒼色大眉 戴玉理  
(玉理 猶玉英 神農也)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 『삼국사기』 〈김유신열전金庾信列傳〉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소호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庾信碑亦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 同姓也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 사기의 족보

헌원 -(장남)소호금천(청양,현효)-교극-제곡고신-요

- 설契 은나라

- 직稷 주나라

- 신라 - 금 - 청

헌원 -(차남)창의-고양- ~ -고수-제순

- 곧 - 우 하나라

- 고구려, 백제

## IV. 君子国と済州神話の比較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순임금이 중앙국 2대 제로 즉위했으나 장남 소호가문의 서쪽 고망국과 차남 창이가문의 아메리카 부락국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씨춘추呂氏春秋』 《사용론士容論》 <무대務大>에 순은 해외를 복속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제위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고 했을 것이다.

옛날에 제순은 바다밖의 나라들을 복속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제의 지위를 이룬 것에 만족해야 했다.

昔有舜欲服海外而不成 既足以成帝矣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요임금 때의 대홍수로 인해 중앙국의 수도가 발해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현원의 첫 도읍은 탁록이었는데 여기도 황해바다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요하문명의 하류에 있던 초기 군자국의 수도가 가라앉은 것이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본다. 『사기』 <봉선서封禪書>에 삼신산은 발해 속에 있다고 하니 발해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는 말이다.

(제나라)위왕·선왕·연나라 소왕 이래로 사람을 시켜 바다로 들어가서 봉래·방장·영주를 찾게 하였다. 이 삼신산은 발해 속에 있다고 전해지며  
自威 宣 燕昭 使人入海求蓬萊 方丈 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勃海中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통일한 전세계를 고망국, 중앙국, 부락국의 셋으로 나눠 통치했다고 『열자』 <주목왕>에 나온다. 고망국에 해당하는 서쪽 1만 2천리는 헌원의 장남이며 신라 김씨의 시조인 소호금천이 다스렸다고 『회남자』 <시척훈>에 나온다. 동쪽 부락국은 헌원의 둘째 아들이며 전옥고 양의 부친인 창의가 다스린 것으로 보인다. <오제본기>에 좌우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고 했으며 또한 두 아들 모두 천하를 얻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중앙국 1만리는 헌원이 직접 다스리다 전옥에게 물려 주었고 제곡고신, 요, 순임금까지 해서 <오제본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오제본기>는 한족의 역사가 아닌 동이족의 중앙국 역사를 쓴 것이다.

## IV. 君子国と済州神話の比較

西極之南隅有國焉(西極の南隅に国有り)

西の果ての南の隅に一つの国がある。

不知境界之所接(境界の接する所を知らず) 名古莽之國(名づけて古莽の国と曰う)

この国の国境がどこまでか分からないが、その名を古莽国という。

陰陽之氣所不交(陰陽の気交わらざる所) 故寒暑亡辨(故に寒暑の弁無し)

陰陽の気が互いに交わらないため、寒さと暑さの差がなく、

日月之光所不照(日月の光照らさざる所) 故晝夜亡辨(故に昼夜の弁無し)

日の光と月の光が射さないため、昼と夜の区別がない。

其民不食不衣而多眠(其の民食わず衣ず而して多く眠る)

その国の民は食べもせず着もしないが、よく眠る。

五旬一覺(五旬に一たび覚む)

50日に一度だけ目を覚ます。

以夢中所爲者實(夢中に為す所を以て実と為し)

夢の中でしたことを事実だと思い、

覺之所見者妄(覚めて見る所の者を妄と為す)

目覚めて目で見たことをすべて虚妄だと思う。

四海之齊謂中央之國(四海の齊しきを中央の国と謂う)

また四方の距離が等しい国を中央国という。

跨河南北(河の南北に跨り)

大河が南と北にまたがって流れ、

越岱東西(岱を東西に越え) 萬有余里(万有余里)

高い山が東と西にあって、地方はすべて一万余里に及ぶ。

其陰陽之審度(其の陰陽の度を審らかにす) 故一寒一暑(故に一寒一暑)

陰陽の度数が明確であるため、寒くもあり暑くもある。

昏明之分察(昏明の分を察す) 故一晝一夜(故に一昼一夜)

暗黒と光明の区別が明確であるため、昼にもなり夜にもなる。

其民有智有愚 (きみんゆうちゆうぐ)

その国の民は知恵ある者もいれば愚かな者もいる。

## IV. 君子国と済州神話の比較

萬物滋殖（ばんぶつじしよく）才藝多方（さいげいたほう）  
あらゆる物が繁栄する。才能も多方面にわたる。  
有君臣相臨（ゆうくんしんそうりん）禮法相持（れいほうそうじ）  
君主と臣下が互いに相まみえることもある。礼儀も互いに整え、法律も互いに守る。  
其所云爲（きしようにい）不可稱計（ふかしようけい）  
彼らが言葉を交わし事をなすことがあまりに多く、到底数え尽くすことができない。  
一覺一寐（いっかくいちび）  
この国の民は昼には目覚めており、夜には眠っている。  
以爲覺之所爲者實（いいかくしそいしゃじつ）夢之所見者妄（むししよけんしゃもう）  
昼に目覚めてなすことを事実とし、夢に見るものをすべて虚妄なものとする。  
東極之北隅有國（とうきよくしほくぐうゆうこく）、曰阜落之國（えつふらくしこく）  
東の果ての北の隅に一つの国があり、その国の名を阜落国という。  
其土氣常燠（きどきじょういく）日月餘光之照（じつげつよこうししょう）  
その地は常に暖かく、日の光と月の光が常に照らしている。  
其土不生嘉苗（きどふせいかびょう）  
その地には美しい穀物の穂も生じない。  
其民食草根木實（きみんしよくそうこんぼくじつ）  
その国の民は草の根と木の実だけを食べ、  
不知火食（ふちかしよく）  
火を焚いて飯を炊いて食べることを知らない。  
性剛悍（せいごうかん）彊弱相藉（きょうじゃくそうしゃ）  
性質が強く荒々しく、弱肉強食をなす。  
貴勝而不尚義（きしょうじふしょうぎ）  
ゆえに戦って勝つことだけを良しとし、義理を尊ばない。  
多馳歩（たちほ）少休息（しょうきゅうそく）  
しばしば忙しく駆け回り、休息が少ない。  
常覺而不眠（じょうかくじふみん）  
常に目覚めていて眠らない。

#### IV. 君子国と濟州神話の比較

『후한서』에도 평양은 요임금의 도읍이라고 나오니 무진년 평양에  
도읍한 단군은 요임금일 가능성도 있다.

평양후국에 철이 난다. 요의 도읍지이다.

平陽侯國 有鐵 堯都此